



세계의 요리 프랑스 맛은 여기서...

몽마르뜨르 (Le Montmartre)



▲ 유럽, 특히 프랑스의 느낌이 물씬 느껴지는 입구.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프랑스 레스토랑 몽마르뜨르는 쉐퍼드 (Sheppard)와 월슨 하이츠 부근에 있다. 노란색의 산뜻한 외관과 가로등 불빛은 유럽의 아기자기하고 예쁜 집을 연상케 했다. 평범한 이웃집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몽마르뜨르는 프랑스 정통 음식 점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한 양복을 입은 종업원이 나와

'봉주르' 하며 인사를 했다. 종업원은 옷장에 걸옷을 걸어두겠냐, 예약은 했느냐 여러 가지 질문을 한 후 우리를 테이블로 안내했다. 약간은 이른 저녁시간이라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테이블은 예약이 되어 있었다. 크게 공간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하나는 단체손님을 받는 흘, 두 곳은 개별손님을 위한 공간이었

다. 벽난로가 있는 실내, 벽에 걸려있는 르느와르와 반고흐의 그림들, 하얀 식탁보가 깔려 있는 테이블, 그 위에 놓여있는 와인잔과 꽃병.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프랑스는 음식의 맛과 향이 뛰어나기로 유명하다. 그래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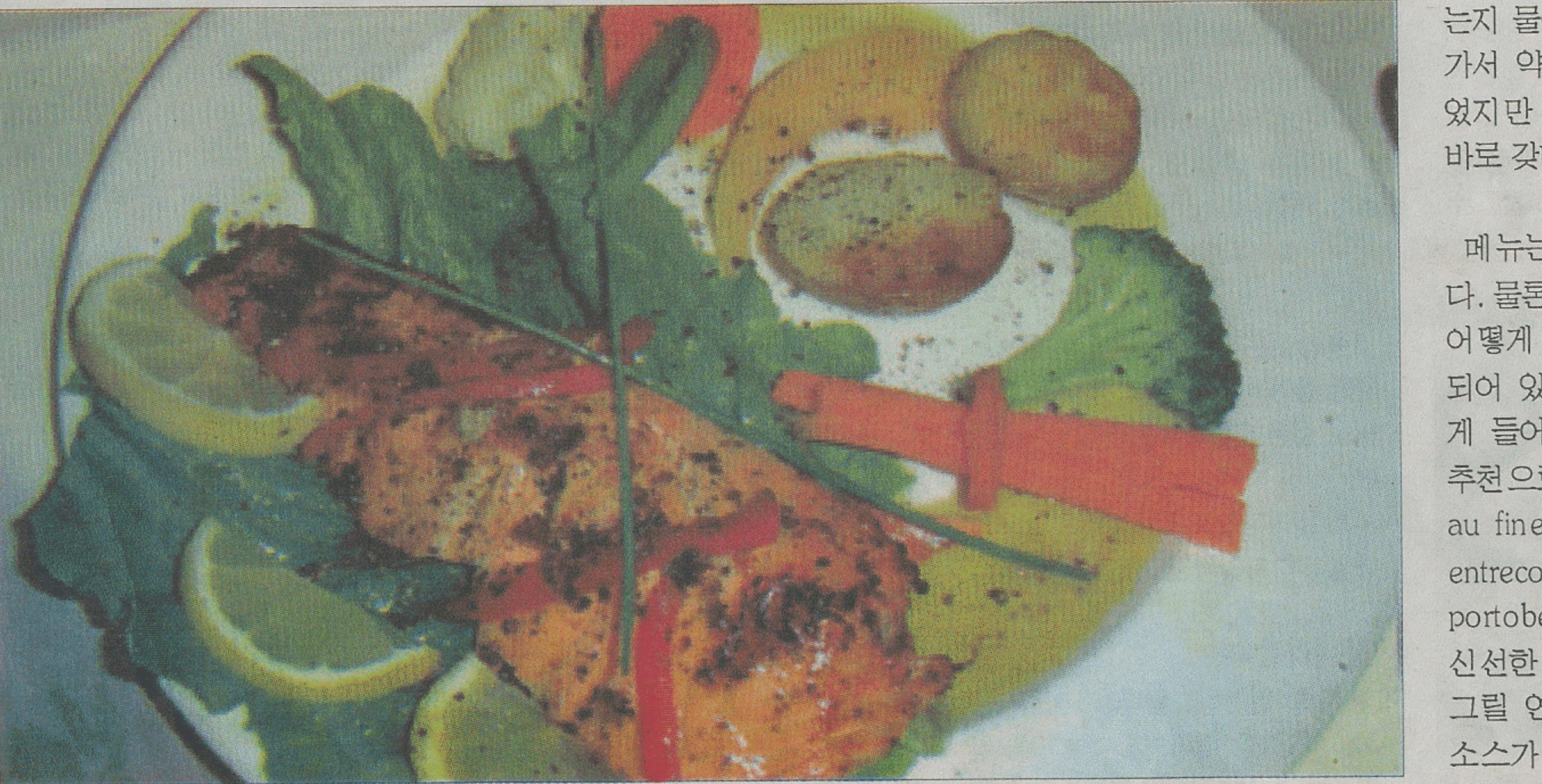
지 퓨전음식이 아닌 프랑스 정통 음식을 맛볼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와인, 프랑스 음식과 떼어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 세계 여러 나라에서 수입된 다양한 와인이 있었다. 입맛을 돋구어주는 와인 한 잔과 호밀빵(흑빵). 처음에 준 빵은 식어서 딱딱했

고 양도 적었다. 빵이 준비되는 대로 주겠다는 종업원의 말대로 바삭하게 구운 빵을 다시 주었다. 처음부터 따뜻하게 구운 빵을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두 명의 종업원과 한 명의 매니저가 실내를 돌아다니며 손님을 접대했다. 와인 잔이 비어있으면 손수 채워주고 수시로 와서 필요한 것이 없

어있는 연어 요리는 양도 푸짐했다. 스테이크의 부드러운 고기와 고소한 브라운 소스는 맛과 향이 잘 어울렸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스테이크가 약간 식어 있었다는 것. 따뜻하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아니라서 요리한 후 바로 주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프랑스 요리사는 맛뿐 아니라



▲ 앙뜨레꾸떼(브라운) 소스가 얹혀진 스테이크. 프랑스식이라 그런지 고기가 식혀져 나왔다.



▲ 신선한 야채와 허브향이 가미된 그릴연어요리. 올리브 오일의 고소함이 배어있다.

는지 물어 보았다. 너무 자주 오고 가서 약간은 산만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손님이 필요로 하는 것을 바로 갖다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메뉴는 모두 불어로 쓰여 있었다. 물론 영어로 재료가 무엇인지 어떻게 요리된 음식인지 설명이 되어 있었지만 메뉴가 한눈에 쉽게 들어오지는 않았다. 종업원의 추천으로 ‘Le filet de saumon grille au fines herbes’ (\$17.50)와 ‘L’entrecoote sauce bordelaise avec portobello’ (\$19.50)를 주문했다. 신선한 허브와 야채가 곁들여진 그릴 연어요리와 버섯에 브라운 소스가 얹어진 채끝등심 스테이크 요리였다. 허브의 향긋한 냄새와 올리브 오일의 고소함이 잘 베

향과 색, 장식으로 예술적인 미를 창조한다. 손대기 아까울 만큼 아름답게 꾸며진 음식과 예쁜 접시를 상상했다면 다소 실망할 것이다. 평범한 흰 접시에 투박해 보이는 야채 장식, 특별하지 않은 소스와 재료. 이 식당만의 차이점이 있다면 음식을 주면서 ‘본 아뻬띠’(bon appetit: 맛있게 드세요)라고 한다는 것과 음식점안에 불어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식당은 금새 남은 테이블이 없을 정도로 손님으로 가득 찼다. 연말 모임을 하는지 단체손님을 위한 홀은 서로 인사를 나누느라 시끌시끌하고 종업원은 더욱 바쁘게 움직였다. 음식에 비해 가격이 비싸게 느껴지기까지 한 이 음식점에 왜 이렇게 많은 손님으로 북적



▲우아하고 아기자기한 분위를 자아내는 실내.

거리나 처음에는 의아했다. 이유는 간단했다. 세련되거나,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불어권 사람들은 이곳에서 편안함과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다. 한국 사람이 식당 아주머니의 구수한 사투리와 뚝배기 된장찌개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문을 나서서 저만치 가고 있는데 종업원이 나와 손을 흔들며 잘 가라고 인사를 했다. 마치 프랑스인 친구 집에 초대 받아 저녁 먹고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몽마르뜨르에서 친근하면서도 낯선 경험을 했다.

Le Montmartre

911 Sheppard Ave. W

416-630-3804

점심 월~금 12시~2:30

저녁 월~금 5:30~10시

토 5:30~10:30

(저녁식사만 가능)

일 개인 파티/이벤트 예약 가능

LLBO 가능/ 예약 필요/

주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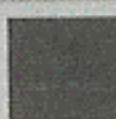
와인을 마시며 저녁식사 할

경우 \$80(2인)예상

(취재 : 김명혜)

William Rd. & Allen Rd.

Le Montmartre (몽마르트르)



Wilson Heights Blvd.

약도

Sheppard Ave.

Bathurst St.



▲ 수수한 실내장식, 프랑스 고향의 느낌이 든다.